국가고시 준비소감

2025년 제53회 치과위생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며..

– 선효림 학생 –

Q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 22학번 선효림입니다.

2025년 제53회 치과위생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경험과 공부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국가고시 준비 과정은 단순한 시험 대비를 넘어, 스스로의 학습 태도와 책임감을 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Q2. 실기시험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이었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먼저 실기시험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시험이 다가올수록 커지는 긴장감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진행된 모의고사를 통해 실제 시험과 유사한 환경을 경험하면서 점차 긴장에 적응할 수 있었고, 이는 실기시험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기시험에서는 무엇보다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의자 높이를 조정하고, 문제를 읽은 뒤 해당 부위를 직접 짚어보며 인지한 후 시작하는 방식으로 루틴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필요한 기구를 미리 준비하고, 학습한 순서대로 동작을 수행한 뒤 마무리 인사를 하는 과정을 반복 연습하여 몸에 익히고자 노력했습니다.

Q3. 필기시험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이었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필기시험 준비 과정에서는 방대한 학습 범위가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초부터 임상까지 다양한 과목을 모두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제 수가 많은 과목부터 우선적으로 공부하고, 이후 비교적 선호하는 과목을 이어서 학습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학습의 흐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점차 공부에 흥미를 느끼며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약집 위주의 학습에서 발생하는 이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강의 자료를 참고하며 개념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Q4. 국가고시를 준비하며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이나, 준비 전과 후 달라진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국가고시를 준비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는 것이었습니다. 준비 전에는 단기간에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암기와 이해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미루지 않고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시간에 대한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른 시기부터 계획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마지막으로 졸업 소감과 학교에 남아있는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려요.

4학년 2학기를 종강하고 졸업만 남은 이 시기에 '친구들과 더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길 걸...' 이라는 후회가 남습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우들과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할 때는 '내가 무조건 1등 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놀 때는 '내가 이 청춘 영화의 주인공이다'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놀며 대학생활을 아름답고 찬란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국가고시 준비는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방향 설정이 있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